

## 새학기, 새출발 새내기가 알아 둬야 할 일정들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4 (목)** 수시 신입생 OT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 1.25 (금)** 수시 신입생 OT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 1.28 (월) ~ 2.1 (금)** 2019학년도 예비 신입생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 2.11 (월)** 영어커뮤니케이션 반편성고사
- 2.22 (금)** 정시 신입생 OT
- 2.23 (토)** 신입생 학부모 OT
- 2.25 (월)** 신입생 수강신청
- 2.26 (화) ~ 2.28 (목)** 새내기 새로배움터
- 2.28 (목)** 겨울방학 종료
- 2.1 (수)** 2019학년도 입학식 및 1학기 개강 3.4 (월)
- 2.25 (월)**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예비대학  
※타 단과대학은 예비대학 미실시

### 지면안내

성적장학금 02  
HSU캐슬

한성인재포인트 II  
한성인재상자수

참여적 전문자수 + 포용력 사회자수 + 열린 세계자수

행복기숙사 03  
호텔이냐 기숙사야?  
상상빌리지 미리보기



학생식당 04  
장기자와 정기자의  
학식 대장정



### 기자사령

**임**  
부편집국장 이가연(인문 2)  
부장 기자 정명애(인문 3)  
정수민(인문 2)  
장선아(사회과학 3)  
심상우(IT 2)

**면**  
부편집국장 김수현(인문 3)  
부장 기자 김종민(한국어문 4)

## 한성대신문사 제46기 수습기자 모-집

뭐어뭐어?  
옹성옹성  
옹성옹성  
...!(호다닥)

학보사에서 신입기자 뽑는데!  
옹성옹성  
올해 마지막이래는데?!

#### | 지원자격 |

- 본교 학부생일 것
- 학적 상태가 '재학'일 것
- 2학년 이하일 것
- 연속 4학기 이상 무휴학 활동할 것 (군입영 휴학 불가능)
-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회 소속이 아닐 것
- 영자신문사 또는 방송국 이종 지원이 아닐 것
- 4월 1일부터 주 4일 이상 근무 가능할 것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학번 · 전공 · 성별 제한 없음

**| 모집기간 |**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선발인원 |** 약 3 ~ 5명

#### | 선발절차 |

- 1차 : 서류(자기소개서)심사 3월 4일(월) ~ 3월 22일(금)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 조율 3월 23일(토)
  - 2차 : 면접(역량 · 인성 · 시사) 평가 3월 25일(월) ~ 3월 29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 3월 30일(토)
- ※ 1차 및 최종 불합격자 통보 예정

**| 활동기간 |** 2019년 4월 ~ 2020년 12월  
※ 편집국장 진급 시 ~ 2021년 6월

#### | 지원방법 |

- ① 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 한성 > 한성공지 > 공지사항에서 '한성대신문사' 검색 후 19번 게시글 첨부파일(한성대신문사 제46기 수습기자 지원 자기소개서)을 내려받아 작성
- ② 작성한 서류를 한성대신문사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첨부하여 제출

#### | 활동혜택 |

- 비교과 포인트 400pt 이상 지급
- 매호 기사 분량별 원고료 지급
- 정기기자부터 매월 직급별 활동비(장학금) 지급
- 명함 및 프레스증 발급
- 사물함 · 복합기 등 무료 사용
- 외부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수여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및 금반지 증정

#### | 문의사항 |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강예림 편집국장 010-8724-0441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



# HSU 캐슬

## “쌤배님, 저희 새내기 장학금 꼭 받아야 해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수험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한성대에 합격한 새내기 한에서. 그는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 ‘강예서’와 분명 다른 사람이지만 한 가지 닮은 점이 있다. 바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서울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역시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CC, 미팅, MT 등 청춘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 그래서 그는 ‘성적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생활도 즐기는 대학생’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예서는 여러 곳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 1단계 : 장학금 제도 이해하기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 예서는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장학금을 주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조사 결과, 예서는 한성대학교 성적장학금에 ‘최우수 한성인재장학금’과 ‘우수 한성인재역량장학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각각의 장학금이 ‘한성인재포인트’와 ‘한성인재상지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데 있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니 ‘최우수 한성인재장학금’은 소속 학부(계열) 한성인재포인트 최고득점자에게, ‘우수 한성인재역량장학금’은 소속 학부(계열)에서 영역별 인재상지수가 가장 높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예서는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성인재포인트는 세 부분의 인재상지수를 합산한 값이고, 학점을 환산점으로 산출한 교과포인트 90%와 한 학기 동안 모은 비교과 포인트 10%를 반영해 계산한다는 내용을 알아냈다. 요즘은 학점을 잘 받고 비교과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 2단계 : 선배 관찰하기

성적장학금 제도를 이해한 예서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높은 성적’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실로 필요한 건 드라마 속 ‘예서’ 엄마가 강조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닌 실제로 장학금을 수령한 선배들의 이야기였다.

우선 그는 장학금을 탄 선배들의 수업시간을 살펴봤다. 선배들은 모두 강의에 집중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선배들은 모두 나름의 필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저 강의를 들으며 필기했다는 김현현(IT 2) 선배는 “자신만의 언어로 메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신만의 언어”에 대해 그는 “특별한 것은 없다. 수업을 들으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서는 대부분의 장학금 수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복습을 빼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평소 통학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복습했다는 김연주(인문 2) 선배는 “복습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다. 수업이 하나 끝날 때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 번 생각했다. 통학할 때는 머릿속으로 간단한 키워드나 수업 내용을

떠올렸다”고 언급했다.

선배들은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도 복습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시험을 잘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발표나 보고서 제출 등 과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이라, 이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루에 여러 과목 시험을 몰아서 보게 되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박술홍(패션 4) 선배는 “애초에 수강신청 때부터 공강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표를 짜”고 했다. 또한 “하루에 한 과목씩 배치하는 것을 지향하는 편”이라며 “시험기간에 각 과목을 정리하기도 편하고 공부하는 데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필기와 복습을 하고 강의시간 배분까지 마친

선배들은 요약본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비했다. 시험공부를 3주 전부터 했다는 조은비(사회과 학 3) 선배는 “이틀에 한 과목씩 잡아서 그동안 필기한 것들을 요약 발표나 보고서 제출 등 과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이라, 이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내 장학금 제도를 탐색하고 선배들의 장학금 공략법까지 전수 받은 한에서. 그러나 예서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비교과 포인트’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비교과 포인트를 어찌하면 좋을지 예서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이기연 기자  
shell99024@naver.com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교수님께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잘하고 지각, 결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시험을 좀 못 봐도 학점이 괜찮게 나옵니다!  
나현주(패션 2)

고등학교 시험과 달리 서울형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고등학생 때보다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된 원치 않는 성적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아직 1학년이니까!! 모두들 파이팅!!  
위아라(인문 2)

성적을 잘 받으면 다음 학기에 3학점을 더 들 수 있어서 다음 학기 장학금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병현(IT 2)

대학교 다스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엄청 놀고 즐기는 대학생 활동을 보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트랙을 흥미롭게 배우고, 복습을 한 번만 해준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한성인재 장학금에 선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대학교에 와서 꼭 재밌고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성대학교 입학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최진영(인문 2)

##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후배님

앞서 장학금을 파헤쳐본 예서는 학점 관리만 하기에도 벅찬데 비교과 포인트는 또 언제 모을지 막막했다. ‘성적장학금인데 성적만 보면 되지 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장학금을 반드시 타내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되새기며 이내 비교과 포인트 제도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학교 홈페이지를 살살이 뒤져본 그는 ‘한성 e-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 매년 500개가 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학습 ▲진로·상담 ▲취업 ▲창업 ▲학과활동 ▲기타 여섯 개 분야로 나누어 있었다. 예를 들어, 학습 분야는 학생들의 학점 관리와 같이 공부에 초점을 맞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습법 워크숍’ 등이 있다. 학생들은 이 분류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골라 참여할 수 있다.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실질적인 꿀팁을 원했던 예서는 급기야 ‘비교과 포인트 열리트’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가 만난 선배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의시간 배분에 대해 조언했던 박술홍(패션 4) 선배는 “프로그램 모집 공고가 많이 게시되는 개강 초에 ‘낙산의 메아리’, ‘한성공지’, ‘학사공지’ 등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선배들을 만나보기 위해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예서는 미래관 DLC 앞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을 만났다. 그들은 강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그중 한병현(IT 2) 선배는 “시간표를 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주공강’이 생기곤 한다”며 “그럴 땐 ‘공강’을 활용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강연을 들으며 유익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강 시간도

알차게 보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또한, 김세민(IT 3) 선배는 “비교과 활동을 비교과 포인트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비교과 포인트를 모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다 보면, 활동 자체에 집중하기 어렵고 역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서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귀찮게만 여겼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다. 모두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었던 것이다.

비교과 포인트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까지 얻어낸 예서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미래관을 나섰다. 그는 오늘 만났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곱씹으며 새내기 첫 학기, 기필코 장학금을 타겠노라 다짐했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 새내기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필기노트

### 한성튜터링

대학에 와서 처음 듣는 전공 강의 교수님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오는지...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럴 땐 혼자 공부 말고 ‘한성튜터링’에 참여해 보자.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선배(튜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과목에서 A 학점 이상 받은 재학생이 튜터를 모집한다. 한성튜터링 모집 시기에 학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를 틈틈이 확인하면 자신에게 알맞은 튜터를 찾을 수 있다.

※혜택 비교과 포인트 30pt, A 학점 이상 취득 시 장학금 2만 원

### 학습컨설팅

다소 수동적인 고등학교 수업 방식과 달리, 주체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대학 교육 특성상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학습컨설팅은 먼저 학습 진단을 통해 상담자가 학생의 학습유형과 심리상태, 진로를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법을 코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학생이 공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로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분석해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참여하기에 적합하다.

※혜택 비교과 포인트 최대 30pt

### 낙(樂)산 스터디 그룹

학점 챙기기도 빠듯한 외중에 자격증부터 영어공부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대학생활. 할 일은 많은데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 나가자니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한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한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낙(樂)산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 팀원들과 함께 공동된 목표를 설정하고 매주 모여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학점은 물론이요, 자격증과 어학성적 모두 놓치지 않는 알찬 새내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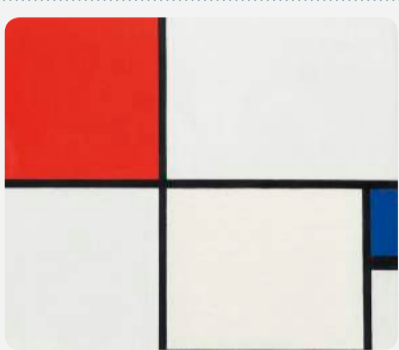
※혜택 비교과 포인트 팀장 30pt, 팀원 20pt, 활동비 10만 원

# 호텔이야 기숙사야? 상상빌리지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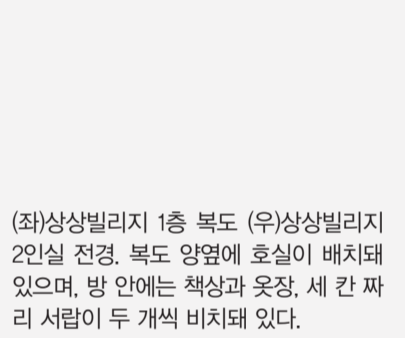
## 〈편집자주〉

우리학교 행복기숙사 '상상빌리지'가 오는 2월 23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우리학교에는 이미 우촌학사와 삼선학사 등의 기숙사가 있지만, 상상빌리지는 이번에 새로 문을 여는 만큼 신입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새내기 게시판에는 입사 지원 기간, 입사생 선발 기준, 기숙사비, 내부 시설 등 상상빌리지에 대한 질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윤 기자와 심 기자가 입주 준비로 분주한 상상빌리지를 미리 방문했고, 관련 부서인 학생장학팀과 시설지원팀을 취재했다. 또한, 그 내용을 가상 인물 '한성이'와 '꼬부기'의 시각에서 쓴 체험기와 Q&A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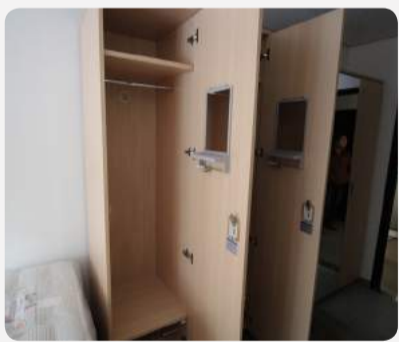
윤희승 기자 yoonhg@gmail.com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좌)상상빌리지 외벽 (우)몬드리안의 작품 <빨강, 파랑, 노랑과 검정의 구성 3>. 흰색 외벽 창가에 드리워진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테두리는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우측 사진 출처: wikimedia



(좌)상상빌리지 1층 복도 (우)상상빌리지 2인실 전경. 복도 양옆에 호실이 배치되었으며, 방 안에는 책상과 옷장, 세 칸 짜리 서랍이 두 개씩 비치돼 있다.



(좌)방 안에 비치된 옷장과 신발장, 냉장고 (우)옷장 내부. 방 안에는 냉장고가 있어 유제품, 신선식품 등도 보관할 수 있다.

## 한성이와 꼬부기가 본 상상빌리지

2월 23일, 한성대학교에 도착한 19학번 '한성이'는 뽕뽕한 캐리어를 끌고 상상빌리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방에서 상경한 한성이가 상상빌리지에 입주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상상빌리지는 공학관 옆에 위치해 있다. 비록 풋살장과 공학관 사이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야 했지만, 기숙사로 향하는 그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밝았다.

상상빌리지에 도착해 외벽을 본 한성이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외벽은 흰색과 베이지색 벽돌로 구성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흰색 외벽의 일부 창가에는 빨강색과 파랑색, 노랑색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 몬드리안의 유명한 작품을 연상시켰다. 외벽을 감상하던 한성이는 기숙사 OT에서 사귀던 동기이자 룸메이트인 '꼬부기'를 만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성이와 꼬부기는 407호를 배정받았다. 4층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1층 로비를 슬쩍 훑었다. 로비 한쪽 구석에는 무인 택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사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이동한 한성이와 꼬부기는 곧 407호 앞에 다다랐다. 현관문은 도어락으로 잠겨 있었다. 이때 한성이가 기숙사 OT에서 받은 보안카드를 도어락에 대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OT에서 배운 대로 카드 스위치(카드 키를 꽂으면 불이 켜지는 스위치)에 카드를 꽂자 형광등이 켜지면서 방 안이 밝아졌다. 호텔과 비슷한 출입 시스템에 한성이는 흥미를 느꼈다.

21㎡(약 6.4평) 남짓한 방에는 침대 두 개와 책상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스위치를 켜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현관 옆에는 신발장 한 개와 옷장 두 개가 자리하고 있었다. 침대 밑에는 세 칸짜리 서랍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알맞았다.

평소 화장실을 가리는 한성이는 방안에 떨어진 화장실 문도 열어봤다. 벽면에는 새하얀 타일이 깔려있었고 샤워부스와 세면대, 좌변기가 있었다. 만족스런 얼굴로 화장실을 살펴보던 그에게 꼬부기는 "지하에 가보자"며 재촉했다. OT에서 들었던 지하 편의 시설의 모습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한성이와 꼬부기가 도착했을 때, 지하 1층은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들로 붐볐다. 한성이는 꼬부기가 매점에서 사온 과자를 휴게실에 앉아 나눠 먹었다. 그 외에도 세탁실, 독서실과 세미나실 등이 지하 1층에 마련돼 있었다.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마치 상상관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식 로비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곳에는 몇몇 학생들이 앉아 통성명을 하고 있었다. 계단 앞에 설치된 무대를 본 꼬부기는 "우리 여기서 버스킹하자"고 농담하기도 했다. 무대 오른쪽에는 라켓 불살과 탁구실, 체력단련실 등 운동 시설이 있었다. '대학생이 되면 꼭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던 한성이는 갑자기 다이어트 욕구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지만 한성이는 "아외로 통하는 계단을 걷는 것도 좋겠어"라며 꼬부기를 설득했다. 계단을 올라 지하 1층에 도착한 두 사람은 상상빌리지 주변을 산책했다. 이들은 걷는 동안 기숙사에서 목격한 공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상상빌리지에 '호텔 상상'이라는 애칭을 붙였다. 건물 외관부터 방 안, 편의 시설 등이 호텔과 비슷하다는 생각에서다. 앞으로 이들이 '호텔 상상'에서 보낼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 새내기가 묻고 꼬부기가 답한다! '상상빌리지 AtoZ'

Q. 안녕하세요, 이번에 19학번으로 입학하는 새내기입니다! 상상빌리지는 대체 어디에 있나요?

A. 상상빌리지는 공학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Q. 상상빌리지 내부가 궁금해요.

A. 상상빌리지는 지상 1층부터 7층까지 기숙사로 구성돼 있고, 지하 1층에 공동 취사장, 매점, 독서실, G.X룸 등 다양한 편의 시설과 운동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Q. 저는 본가가 지방에 있는데, 상상빌리지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A. 신입생의 경우, 거리만을 고려해 선발하기 때문에 본가가 필수로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재학생도 입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상상빌리지에 누구든 쉽게 들어갈 순 없겠죠? 재학생은 거리와

성적을 반영해 선발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학점이 필수랍니다.

Q. 저는 상상빌리지에 입주할 생각이 없는데요, 기숙사의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잠깐, 우리학교 학생이시라고요? 그럼 지하 운동 시설과 편의 시설을 마음껏 누리세요. 단, 평일 낮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입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증금도 있는 건가요?

A. 기숙사를 선택할 때 금액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상상빌리지 입주 비용은 1인당 월 24만 원으로, 별도의 보증금은 없습니다. 추가로 상상빌리지는 기존 기숙사와는 다르게 장기 입주 희망자 위주로 우선 신청을 받을 거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 입주자는 학기

중에만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기간을 포함해 6개월 혹은 1년 동안 입주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말한답니다. 장기 입주자에게는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 고민해볼 만하죠?

Q. OT에서 친해진 친구랑 같이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A. 어찌죠? 안타깝게도 올해 1학기에는 추첨을 통해 룸메이트를 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2학기부터는 상상빌리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입사를 지원할 수 있게끔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룸메이트도 신청할 수 있게 될 지 몰라요.

Q. 기숙사가 처음이라 걱정돼요. 보안은 철저한가요?

A. 물론이죠(웃음). 기본으로 모든 층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1층 출입구에서

캡스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며 학생들을 지켜줄 테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Q. 이제 막 해방됐는데 통금이 있다고요?

A. 네. 아쉽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통금시간이 존재합니다. 다른 기숙사와 동일하게 '23시 30분'이에요. 아! 그리고 통금시간이 되면 점호도 이뤄질 예정이니 통금시간보다 조금 일찍 귀가하는 게 좋겠네요. 점호에 불참하거나 지각할 시, 이에 준하는 벌점이 부여된다고 해요. 참고로 누적 벌점이 16점을 초과하면 퇴사 조치가 취해질 거예요.

Q. 제가 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외박해도 돼요?

A. 그럴 수 있죠(웃음). 외박을 원하는 날에는 사감 선생님께 외박계를 받아 작성한 후 미리 제출하면 된답니다. 외박은 횟수 제한 없이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외박을 자주 하면 기껏 낸 기숙사비가 조금 아깝겠죠?

Q. 마지막 질문이에요! 짐을 미리 옮겨줘야 할 것 같은데, 입주는 언제부터인가요?

A. 실입주는 2월 23일(토)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상빌리지 입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1월 28일(월)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거예요. 이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됐나요? 상상빌리지에 머무르게 될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